



LG전자는 4일 메트로폴리스 물에 개장한 브랜드샵 오픈행사 참가자들이 올레드 TV 등 다양한 프리미엄 제품을 체험하고 있다. /LG전자

러 프리미엄 브랜드샵 오픈... 현지 공략

LG전자, 온라인 픽업존 등 마련

LG전자가 러시아에 LG 프리미엄 브랜드샵을 열고 현지 시장을 적극 공략한다. LG전자는 러시아 모스크바의 대형 쇼핑몰인 메트로폴리스 물에 377㎡ 규모의 프리미엄 브랜드샵을 열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오픈행사에는 LG전자 CIS 지역 대표 겸 러시아법인장 이일환 전무를 비롯한 현지 언론 및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LG 클로이 청소로봇이 매장 주위를 청소하는 모습으로 고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LG전자는 고객들이 프리미엄 가전 L

G 시그니처(LG SIGNATURE)를 비롯해 ▲올레드 TV ▲인스타뷰 냉장고 ▲트윈워시 세탁기 ▲코드제로 A9 무선청소기 등 다양한 프리미엄 제품을 편안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했다.

또한 진열되지 않은 제품도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바로 주문할 수 있는 단말기를 매장 곳곳에 설치하고, 온라인에서 주문한 제품을 매장에서 직접 찾아갈 수 있는 온라인 픽업존도 마련해 고객 편의를 높였다.

LG전자는 프리미엄 브랜드샵에서 축구경기 관람, 요리 교실 등 현지 고객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다양한 마케팅을 펼칠 계획이다. /안병도 기자

포스코, 중소·벤처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

포스코가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포스코는 지난 4일 포스코센터에서 제 15회 아이디어 마켓플레이스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아이디어 마켓플레이스는 벤처창업 희망자·초기 벤처기업·투자자들이 서로 만나 자연스럽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포스코에서 육성한 벤처기업을 참가자들에게 소개해 투자유치를 돕는 대표적인 동반성장 프로그램이다.

포스코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163개 벤처기업을 선정하여 111억 규모의 직접 투자를 실시하고 투자자와 벤처기업을 연결하는 활동을 통해 830명 이상의 신규 고용을 창출했다.

올해 포스코가 선발한 12개 벤처기업은 시제품을 전시하고 바이오·인공지능·전자상거래 등 4차산업 혁명을 이끌 각사의 아이디어와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디자인노블 신기영 대표와 예



지난 4일 대치동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제 15회 아이디어 마켓플레이스에서 참석자들이 벤처기업의 제품 설명을 듣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

이런 오순봉 대표가 각각 최우수 스타트업상과 최우수 아이디어상을 수상했다.

16회 아이디어 마켓플레이스는 오는 11월 포항에서 열릴 예정이며, 포스코 벤처기업육성 프로그램 지원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나 벤처 기업은 포스코 아이디어 마켓플레이스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접수 가능하다. /양성운 기자 ysw@



페루 시민들이 삼성전자의 초대형 LED 사이니지를 통해 야외에서도 선명한 화질로 축구 경기를 즐기며 있는 모습. /삼성전자

삼성전자, 페루서 초대형 LED 사이니지 설치

삼성전자는 4일(현지시간) 페루 리마에 위치한 프리미엄 쇼핑몰 플라자 노르페에 중남미 최대 크기의 고화질 LED 사이니지 옥외 전광판을 설치했다.

이 사이니지는 가로 63미터(m), 세로 7.7m로 경차 85대를 동시 주차할 수 있는 크기를 자랑하며 최대 7700니트 밝기를 구현해 야외에서도 선명한 화질을 제공한다.

또한, IP65등급의 방수·방진 규격을 획득해 눈비가 오거나 뜨거운 햇볕에 지

속적으로 노출되는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지진 발생이 잦은 특성을 고려해 내구성을 대폭 강화했다.

플라자 노르페는 월 400명이 방문하는 페루 최대 쇼핑몰 중 하나로 주변에 버스터미널과 음식점, 패션 상가 등이 밀집해 있는 번화가에 위치해 런던 피카딜리와 뉴욕 타임스퀘어 등의 전광판과 같이 중남미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현대모비스, 9년만의 성과 보였다

친환경차 부품 매출 1조원 달성

‘2018 지속가능성보고서’ 발간
자율주행차 ‘엠빌리’ 확대 운영

현대모비스가 지난해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차 부품 매출액 1조1000억원을 달성했다고 5일 발간한 ‘2018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이는 현대모비스가 지난 2009년 친환경차 부품을 첫 양산한 이후 9년만의 성과다.

지난 5월까지 글로벌 시장에서 현대·기아차의 친환경차 판매량은 10만대를 돌파했다. 하이브리드·전기차·수소전기차 등 현대·기아차의 모든 친환경차 라인업에 핵심부품을 공급하는 현대모비스의 친환경차부품 매출은 올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현대모비스는 지속가능성보고서를 통해 차세대 수소전기차 넥쏘 등 올해 양산 중인 총 16개 차종의 친환경차에 핵심부품을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성능을 개선한 하이브리드차량용 모터·전력변환장치(인버터/컨버터)·배터리시스템 등은 일반 내연기관차 대비 62.8%의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모비스는 자율주행·커넥티비티 등 미래차 비전과 연구개발현황도 지속



현대모비스 친환경차부품 생산기지인 충주공장에서 작업자가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현대모비스

가능성보고서에 담았다.

현대모비스는 구체적인 미래차 연구개발 성과로 글로벌 자율주행 테스트차량 ‘엠빌리(M. Billy)’를 국내와 북미·유럽에서 현재 3대에서 올해 말까지 총 10대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차량 외부 360도를 감지할 수 있는 자율주행차용 레이더 센서 5개를 올해 안에 개발해 오는 2021년까지 순차적으로 양산할 예정이다.

한편 현대모비스는 주요 이해관계자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경제·사회·환경 부문 경영성과를 이해관계자들과 공유하기 위해 ‘2018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발간했다.

31개 경영이슈 가운데 중요성 평가를 거쳐 ▲미래기술 개발과 경쟁력 확보 ▲고객만족 경영 ▲인권과 조직문화 등 3가지 핵심주제와 컴플라이언스·리스크 관리·사회공헌·환경경영 등 7가지 일반주제로 구성했다.

지속가능성보고서는 기업의 사회책임 경영 성과와 이익창출능력을 평가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현대모비스는 지난 2010년부터 지속가능성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평가에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 연속 최고 등급인 ‘월드’ 등급을 받았다.

/정연우 기자 yw964@metroseoul.co.kr

LG전자 ‘올해의 에너지위너상’ 최고상 수상

시그니처 노크온 매직스페이스 냉장고 문 열지 않고도 확인 가능해 효율성 ↑

LG전자가 ‘올해의 에너지위너상’에서 최고상을 받으며 차별화된 에너지 효율을 인정받았다.

LG전자는 5일 소비자시민모임과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 주최하고 환경부와 한국에너지공단 등이 후원하는 ‘제21회 올해의 에너지위너상’에서 LG 시그니처 노크온 매직스페이스 냉장고가 최고상인 ‘에너지 대상 및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또한 총 10개의 상 가운데 대상 3개를 포함 7개를 휩쓸어 수상 기업 가운데 가장 많은 상을 받았다. ‘올해의 에너지위너상’은 에너지 효율이 뛰어나고 에너지 절약 효과가 우수한 기술 또는 제품에 주어지는 상이다.

상을 받은 LG 시그니처 노크온 매직스페이스 냉장고는 신개념 수납공간인 매직스페이스에 노크온 기능을 추가한 제품이다. 사용자가 매직스페이스 도어를 두드리면 냉장고 안 조명이 켜진다. 냉장고 문을 열지 않고도 보관 중인 음식을 확인할 수 있다. 사용자가 문을 여닫는 횟수를 최소화해 문 전체를 여



최고상을 받은 LG 시그니처 노크온 매직스페이스 냉장고. 노크온 매직스페이스를 사용할 경우, 사용자가 문을 여닫는 횟수를 최소화해 문 전체를 여닫을 때에 비해 냉기 유출을 47% 줄일 수 있다. /LG전자

닫을 때에 비해 냉기 유출을 47% 줄일 수 있다.

이밖에 고효율 백컨택 태양광 모듈이 ‘에너지 대상 및 환경부장관상’, 휘센 벽걸이 에어컨은 ‘에너지 대상’을 받았다.

기존 태양광 모듈은 기상변화에 따라 발전량의 편차가 컸다. 하지만 고효율 백컨택 태양광 모듈은 다양한 기후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태양전지 표면 전극을 후면에 위치시키는 후면

전극 기술을 적용해 기존 제품 대비 모듈 출력을 15% 정도 높였다. 신뢰성 테스트 결과 25년 이상을 사용해도 초기의 87% 수준 출력을 낼 수 있다.

휘센 벽걸이 에어컨은 공기청정 기능을 강화했다. 실내 먼지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공기 질이 좋지 않으면 자동으로 공기청정 기능을 작동한다. 또한 인버터 컴프레서를 탑재해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소음은 줄였다.

에어컨이 냉방 운전할 때 실내에서 회수한 열을 이용해 온수를 생산하는 시스템 에어컨 멀티 브이 HS는 ‘에너지 효율상’을 받았다. 냉난방 성능을 향상시키고 소비전력을 절감하기 위해 새로운 형태로 독자 개발한 하부압축스크롤 압축기를 적용한 초절전 상용 인버터 에어컨은 ‘에너지 기술상’을 수상했다.

고효율 리니어 압축기를 사용해 동급 모델 대비 가장 낮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디오스 상냉장·하냉동 냉장고는 ‘00. 저감상’, 부피가 크거나 양이 많은 재료를 한 번에 편리하게 조리할 수 있도록 화구의 활용성을 높인 디오스 인덕션 전기 레인지는 ‘에너지위너상’을 수상했다. 인덕션 제품이 에너지위너상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안병도 기자 catchrod@

현대상선, 친환경기준 부합 대형 컨선 취향

1만100TEU급 ‘HMM 프로미스호’

현대상선이 5일 1만1000TEU급 컨테이너선 ‘HMM 프로미스호’ 취향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부산항 신항 4부두에서 개최된 취향식에는 유창근 현대상선 사장을 비롯해 봉현수한진중공업 사장(조선부문), 강부원

부산항만공사 국제물류사업단장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에이치엠 프로미스호는 지난해 8월 한진중공업으로부터 인수한 1만1000TEU급 컨테이너선 2척 중 첫 번째 선박이다. 현대상선은 현재 전 세계 운항 중인 1만1000TEU급 이상의 메가 컨테이너선 중 유일하게 최대 규모의 스크러버를 에



5일 부산항 신항 4부두(HPNT)에 1만1000TEU급 컨테이너선 에이치엠 프로미스호가 첫 취향을 위해 입항을 준비하고 있다.

이치엠 프로미스호에 장착해 2020년부터 시행되는 국제해사기구(IMO) 황산화물규제에 대비했다. /양성운 기자